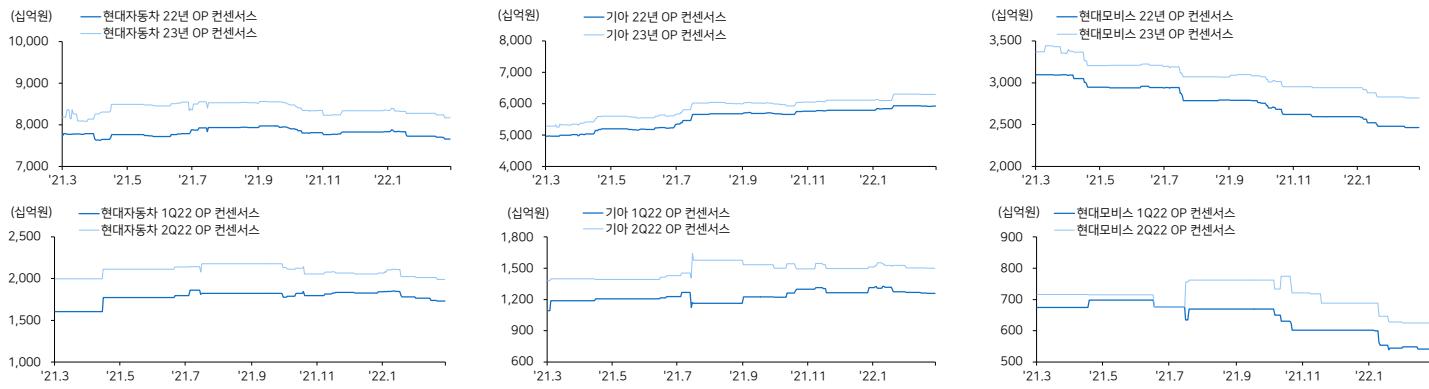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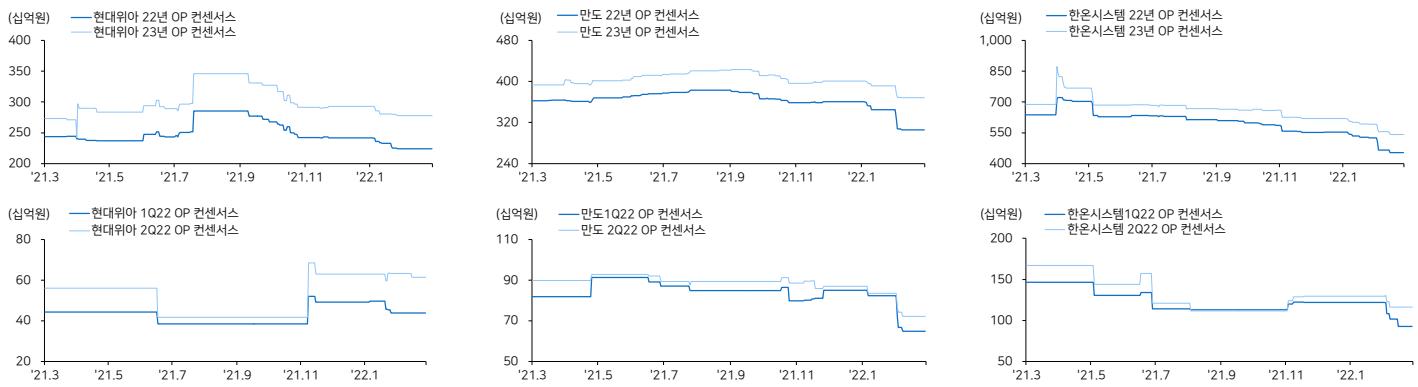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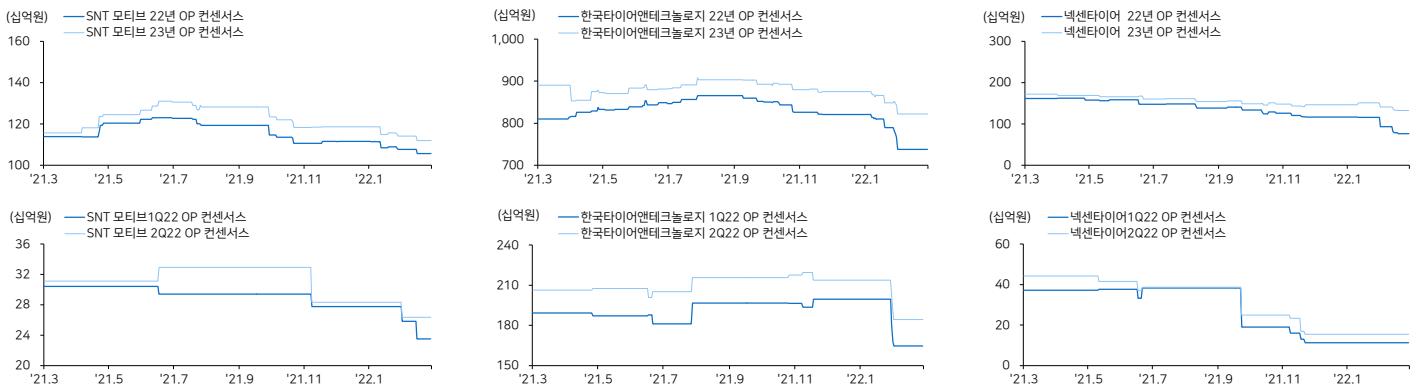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공급망 봉쇄에...현대차 울산공장 생산 차질 연장 (서울경제)

중국 산동성 와이어링하나스 납품 공급사들이 COVID19로 지난 9일부터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GV60/70/80 등 제네시스 주요 제품향 공급 결파가 15일부터 예상됨. 이에 따라 이번 주 울산 공장의 생산 일정을 조율을 중.

<https://bit.ly/3CKYTKD>

#### 운전대 · 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미국 도로 달린다 (한국경제)

미 도로교통안전처(NHTSA)는 자율주행차에 전통적인 수동 조종 장치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 최종 규정을 발표함. 신규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안전 규제를 충족 시 페달, 핸들 등 수동제어장치 없는 자율주행차를 생산/운행 가능.

<https://bit.ly/3i3m4lZ>

#### Volkswagen warns of risks from Ukraine crisis as operating profit doubles (Reuters)

폭스바겐, 2021년 영업이익 yoy +99% 증가한 193억 유로 기록. 주요 원인은 가격 인상과 제품믹스 개선. 2022년 OPM 7~8.5% 예상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추가 영향과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날라설 수 있다고 언급.

<https://reut.rs/3i3k2bn>

#### Analysis: Ukraine war upending central Europe's post-COVID car revival (Reuters)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럽 일부 지역 공급망 차질 심화, 원자재 부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업종 전반적 타격이 예상됨. 이미 주요 자동차 공장은 감산을 결정했으며, 제코, 루마니아, 평가리 등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이 역시 하향됨.

<https://reut.rs/3i7H7zt>

#### 현대차 아이오닉5, 서울서도 구독서비스로 탄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가 14일부터 모빌리티 구독 플랫폼 '현대셀렉션'의 전기차 구독 서비스를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함. 이용요금에는 차량 관리비/보험료/자동차세 등 대부분 부대비용이 포함됨. 아이오닉5의 월 구독료는 99만원.

<https://bit.ly/3CkT6xp>

#### 美 AI 반도체 시장 고속성장...2025년 86조 전망 (THE GURU)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이 점차 확대되며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 중. 가트너는 AI반도체 개발 회사가 글로벌리 50개 이상이며, 총매출은 '20년 230억달러에서 '25년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https://bit.ly/3tVNHzo>

#### Stellantis CEO predicts healthy competition with Tesla (Teslarati)

Stellantis CEO인 'Carles Tavares'는 '테슬라와의 경쟁에 매우 자신있고, 몇 년 안에 테슬라를 따라잡을 것이며 전전한 경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다'고 언급함. 당시 첫 픽업트럭 Ram 1500 BEV는 '24년 출시 예정.

<https://bit.ly/35Lp919>

#### Mercedes-Benz firms up plans for 2,500-tonne battery recycling plant (Reuters)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에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확정함. '23년까지 분해 공장을 건설, 이후 원료의 습식 공정이 건설될 것. 연간 생산 Capa는 2,500톤으로 예상. 재활용된 재료는 EQ 모델용 배터리로 사용될 계획.

<https://reut.rs/3tUCQiq>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